



출구전략 시행의 신흥국에 대한 영향 분석

채원영 연구원

- 미 연준의 출구전략 가능성 시사로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금 유출이 나타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2013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이 제기되어 출구전략 시행의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.
-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)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가능성 시사로 5월 이후 브라질, 인도 등의 달러대비 통화가치와 주가지수가 하락하고,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음.
 - 5월 초 이후 달러대비 통화가치는 브라질 헤알 5.4%, 인도 루피 6.3% 하락하였으며 원화의 경우 6.3% 하락하였음.
 - MSCI 신흥국 지수는 5월초 대비 8% 하락한 반면 MSCI 미국 지수는 2.3% 상승하였음.
 - 5월 초 대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브라질 1.4%p, 호주 0.35%p, 한국 0.5%p 상승하였음.

〈그림 1〉 연초대비 환율 추이



자료: Bloomberg.

〈그림 2〉 각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추이



자료: Bloomberg.

■ 세계은행과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경우,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신흥국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였음.

- 세계은행(World Bank)은 6월 12일, 개발도상국(Developing Countries)¹⁾의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 5.5%에서 5.1%로 하향 전망하였음.
 - 하향 전망의 근거는 엔저 현상으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상실,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하락세, 개발도상국 인플레이션 압력과 자산 가격 버블 형성,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등임.
- OECD는 미국, 유로,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를 종료할 경우 한국, 중국, 멕시코, 브라질 등 신흥시장국의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.

■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리 상승은 보험사 경영환경에는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으나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급등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 둔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- 장기적으로 출구전략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가 정상화되면 언젠가는 시행될 것임.
 - 미 연준은 실업률 6.5%, 물가상승률 2.5%가 달성되어야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언급함.
 - 현재 미국 실업률은 7.6%, 물가상승률은 1.1%로 현재의 출구전략 조기 시행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나, 목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달성되면 출구전략은 시행될 것임.
-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미국 및 신흥국의 국채금리 상승은 채권 중심의 자산운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- 그러나 출구전략 현실화에 따른 자본 이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, 신흥시장국의 주가 및 채권 가격 하락,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 투자 축소와 가계 부채 부담 증가 등은 실물 경제 성장을 위축시켜 보험산업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(WSJ, FT, World Bank 등)

1) 중국, 인도네시아, 태국, 러시아, 터키, 루마니아, 브라질, 멕시코, 아르헨티나, 이집트, 이란, 알제리, 인도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남아프리카, 나이지리아, 앙골라 등.